

# 나주시,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새 단장 마치고 2월 재개원

### 산모실 확대, 편의시설 강화... 전남 최대 규모로 새출발 안전, 위생, 회복 기능 보강... 산모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

전라남도 도내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한 나주시가 도내 최대,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새출발을 알렸다.

나주시는 28일 빛가람종합병원에 위치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의 전면 리모델링 및 기능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이날 재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은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전남 중·서부권 산모들의 산후 회복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휴업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다.

기존 산모실 16실보다 확대된 18실을 확보했으며 3층에 마사지, 요가, 족욕, 모유수유실 등 산모 만족도가 높은 회복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며 단순한 산후조리 기능을 넘어 회복과 힐링을 함께 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용 승강기를 신설했으며 신생아실과 공용 공간에는 감염 예방과 보안 설비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생활 취약계층 등 감면 대상자가 아닌 일반가정의 경우 1주 기준 80만 원이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으로 이용료의 최대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약은 전남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을 통해 선착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전남 내 타 산후조리원과 중복예약은 불가하다.

이용료와 감면 대상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나주시 보건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빛가람종합병원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러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임신, 산후조리, 양육, 교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출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오경규 빛가람종합병원 원장은 "산후조리원은 출산을 마친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전라남도과 나주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사 기간 기다려 주신 산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원하는 나주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들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는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 육아, 교육까지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진도 소포리 길쌈노래', 전라남도 무형유산 지정 진도 길쌈노래 보존회는 보유단체로 인정

진도군의 전통 여성 노동요인 '진도 소포리 길쌈노래'가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진도 길쌈노래 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무형유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지정 심의를 거쳐 '진도 소포리 길쌈노래'를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유단체로 '진도 길쌈노래 보존회'(보존회장 한봉덕)를 인정했다.

길쌈노래는 여성들이 목화를 재배하고 실을 뽑아 베를 짜는 길쌈 과정에서 공동 노동의 능률을 높이고, 삶의 기쁨과 슬픔(애환)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전통 노동요로, 지역 여성들의 생활 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중요한 무형유산이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진도 길쌈노래 보존회는 현재 28명의 회원으로 구성

돼 있으며, 보존회장인 한봉덕 씨는 길쌈노래를 비롯해 지역의 민속예술을 전승해 온 고(故) 한남례 씨의 동생으로 지역 민속예술 전승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보유단체 인정은 진도 지역의 여성 생활 문화에 대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진도군의 '전라남도 무형유산'은 ▲진도북놀이 ▲진도만가 ▲진도홍주 ▲남도잡가 ▲진도소포리길쌈노래 ▲조도맞배노래 ▲진도아리랑 ▲진도 소포리 길쌈노래, 총 8종으로 늘어나 대한민국 문화도시(민속문화의 섬, 진도)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27일 담양군보건소 주관으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담양군보건소, 담양소방서, 지역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지역 응급의료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 담양군,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응급환자 이송·수용 과정 개선 방안 집중 논의

참석자들은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 ▲응급환자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애로사항 ▲이송 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양/이종욱 기자

순천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 순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나서 '생활불편신고 앱' 실시간 시민 신고 접수... 주말·야간도 상시 단속

부정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병원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계도반을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물 배부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어 주말과 야간에 단속 효과가 상시 지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계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발해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계도반 운영과 홍보 활동을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영암군청년센터 달빛청춘마루가 2월 진행되는 '청년 아트 힐링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크릴화 그리기' '캘리그래피' 2개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청년의 치유와 여가를 위해 마련된 것. 수업은 예술 활동을 하며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표현력을 높이는 내용이다. 아크릴화 그리기는 미술 경험이 없는

## 영암군청년센터, 치유·여가 청춘클래스 참가자 모집 2월 '아크릴화 그리기' 과정... 달빛청춘마루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하루 수업으로, 짧은 시간 안에 완성작을 만들어 보는 체험형이다. 다음달 14일 삼호청소년문화센터, 21일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각각 열린다.

캘리그래피는 총 8회 과정의 정규 프

로그래밍으로, 붓글씨의 기초부터 감성 표현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수업은 2/12~4/22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달빛청춘마루에서 진행된다.

두 클래스에는 영암군 거주 19~49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고, 과정별로 신청

순 12명이 모집 인원이다. 참여 신청은 달빛청춘마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청년센터(061-470-1023)에서 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춘 클래스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취미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장이다. 많은 청년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이 최선

###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8일 최근 인근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주로 감염된 가금류 또는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체 및 분변, 오염된 물건 등에 접촉한 뒤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거나, 드물게는 오염된 먼지 등의 흡입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 일반 감기와 유사하나 결막염,

안구 불편감 등 안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게 구토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철새·야생조류 및 폐사한 조류와 접촉금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외출 후 손 씻기 ▲필요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등 생활 속 예방 수칙 실천을 강조했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아직 국내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근 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선제적 예방 차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AI 발생 지역에서 동물과 접촉 후 10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